

‘아이오닉5’ 더 멀리 간다... 현대차, 전기차 상품성 개선 박차

‘아이오닉5’ 부분변경 모델 출시
배터리 성능 향상... 485km 주행
“전기차 선도기업 입지 공고히”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5 전측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주행거리와 첨단 편의 사양을 강화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부분변경을 출시하면서다. 전기차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면서도 가격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놓았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진행하면서 첨단 기술을 도입.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4일 현대차는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이하 아이오닉 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다채로운 고객 편의사양,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아이오닉 5는 84.0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복합, 2WD 모델 기준)가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4세대 배터리를 적용해 급속 충전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킬로와트(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돼 상품 경쟁력이 강화됐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를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객에게 SDV 기반의 첨단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한다. 또 승차감과 정숙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주행 감성이 높아졌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와 차체 보강을 통해 충돌 안전 성능이 더욱 향상됐다.

이 외에도 기존 모델의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보다 강인한 느낌의 외장과 편의성을 높인 내장 디자인을 갖췄다. 아울러 역동적인 감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이드 디지털 미러.

성을 강조한 N 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돼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더 뉴 아이오닉5 판매가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는 점에서 인하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E-Lite 5240만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원 ▲프레스티지 5885만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실제 구매가격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 전기차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모델

Y 가격을 2200만원 가장 할인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 판매가를 당초 사전계약때보다 낮춰 4000만원 후반대로 책정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시장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더 뉴 아이오닉 5 판매목표를 1만3500대로 지난해 판매량(1만6605대)보다 소폭 낮춰 잡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 5는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배터리 성능 향상, 편의 사양 추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소형 SUV 코나 전기차의 연식변경 모델과 디자인 특화 패키지 모델 아이오닉6 블랙에디션도 함께 출시했다. 2024 코나 일렉트릭은 기본형 프리미엄 4352만원부터다. 연식변경인 2024년형 아이오닉6는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000만원, 롱레인지 E라이트 5060만원부터로 주요 트림마다 200만원씩 낮췄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디앤디-SK이터닉스 인적분할 완료

‘부동산·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 새출발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 해소
전문성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SK디앤디(SK D&D)가 인적분할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SK디앤디는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SK이터닉스(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SK디앤디는 부동산 사업을,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이번 인적분할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두 이종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가 각각의 회사

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었던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가치 사슬 확장에도 동력을 더할 방침이다.

SK디앤디는 종합 부동산 전문회사로 발돋움한다. 부동산 업계 선두 디벨로퍼 지위를 굳건히 하는 한편,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리빙플랫폼’ 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사업,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와의 시

너지, PF조성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해 나가며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SK이터닉스는 4일 이사회를 창립 총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새롭게 시작한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내 톱티어 친환경에너지 발전사다. 이번 분할로 투자 자원 확보, 전력중개, ESS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사의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를 고려해 SK디앤디 약 77%, SK이터닉스 약 23%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호타이어, 사우디 블랏코에 기술 수출

20년간 타이어 생산기술 전반 지원

금호타이어가 중동의 최대 자동차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랏코’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용인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을 비롯해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 압둘아지즈 알 오리니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블랏코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판매되는 승용 타이어 생산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2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와 계약을 맺은 블랏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조기업으로, 2027년까지 사우디 서부 산업단지에 약 8만 5000평 규모의



사우디 주한 대사 사미 알 사드한(왼쪽부터), 블랏코 회장 압둘라 알와히비,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금호타이어-블랏코’ 기술수출 계약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타이어 공장을 완공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랏코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타이어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계약이 기술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 및 중동 자동차 산업 및 시장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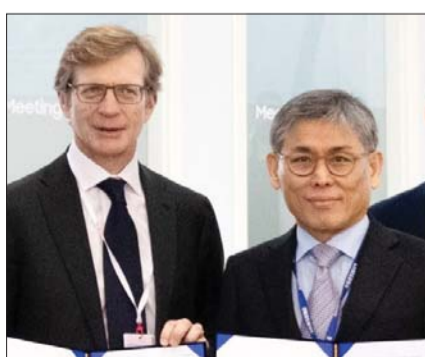
삼성메디슨, 초음파·조영제 등 첨단의료 분야 개척

브라코이미징 업무협약 체결

삼성메디슨이 첨단의료 기술을 글로벌로 확대한다.

삼성메디슨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4 유럽영상의학학회(ECR2024)에서 브라코이미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초음파 진단기와 조영제 활용 신규 진단 영역 개척을 위한 내용으로, 초음파 진단기 경쟁력을 높여가는 삼성메디슨과 초음파 조영제 시장 전 세계 1위 업체인 브라코이미징이 기술력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모아서



브라코이미징 폴비오 레놀디 브라코 대표와(왼쪽) 삼성메디슨 김용관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너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양사는 MOU를 통해 양사는 초음파 진단기와 조영제 품질 강화 및 활용

도 확장을 위한 공동 연구를 검토 중이다. 초고해상도 진단 영상 제고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도 함께 진행하며 의료진 교육이나 전시 참여 등 글로벌 마케팅에도 상호 협력한다. 조영제 및 약물 운반체 기술을 의약품과 결합한 신규 시장 개척 등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김용관 대표는 “브라코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초음파 진단 분야 역량 강화 및 미래 초음파 치료 분야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삼성메디슨은 다양한 초음파 임상 응용기술 및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도와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글로벌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우수 인재 파견 등 노하우 전수

LG전자가 상담 서비스 노하우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LG전자 자회사 하이텔서비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상담센터 역량 제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하이텔서비스는 우수 상담 컨설턴트와 조직 운영 전문가로 내부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노하우와 인재 육성,

조직 운영 방안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수준을 고르게 높이기 위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부장 정연채 부사장은 “해외 상담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글로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